





죽음을 경험했지만 그곳에서 저들의 작은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. 도시에 가까운 안중안 (Anjungan) 신학교를 설립 할 때 정글 속 교회개척 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도전했는데 그 후 그 지역을 떠나 다른 곳에서의 개척 사역을 하게 되었고 어느새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, 지난

6월말에 개최된 인도네시아 선교사 대회에서 보여 준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위대하고 대견하기만 했다. 저들은 선교사이며 교수였던 필자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. 하나님은 안중안 신학교에도 저들을 계속해서 성숙하게 만드셔서 이제는 빠무지라는 한 지도자(사진 왼쪽)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선교 운동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. 필자는 이 선교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"여러분들은 나 보다 더욱 훌륭하고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으니 이 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"라고 격려를 하고 돌아 왔다. 하늘 나라로 떠나시기 전 주님은 제자들에게 "더욱 큰 일"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.

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선교운동은 하나님의 때에 당연히 만들어진 시기 적절한 하나님의 운동이 아닐 수 없다. 한국에서의 선교 운동이 그랬듯이, 선교의 역사를 들여다 보면 영국이 그랬고, 미국이 그랬듯이 선교는 젊은이들에게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축복의 길이고, 많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 주는 일이고, 그 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선교 운동은 한 국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.

이러한 축복의 길을 한국 교회는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. 우리가 놓치면 다른 국가들의 독차지가 될 것이고, 우리의 무관심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이다. 이제는 이 일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성숙한 선교, 전략 있는 선교를 논해야 때이고, 협력을 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. 현지 지도력을 세우는 선교는 곧 그 나라와 국가에 가져다 줄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향후 한국 선교의 방향은 현지 지도자들을 세워, 선교의 명령을 받들어 사회와 문화를 개혁하여 하나님의 문화로 재창출하는,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.